

“불교 공부한 이후 비로소 유학을 알게 됐다”

<36> '호법론'의 저자 장상영(張商英) 거사

복숭기 기라성 같은 수많은 거사들 가운데 소동파 거사와 필적하는 거사가 장상영(1043-1121) 거사다. 거사는 촉주(蜀州: 현 四川省 崇慶)의 신진(新津)사람으로, 자는 천각(天覺), 호는 무진 거사(無盡居士)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난 하루에 만언(萬言)을 암송했고, 19세에 급제해 신종(神宗)때 왕안석과 함께 '신법'을 공포했다.

거사가 불교에 인연을 맺게 된 까닭은 평제청의 <거사전> 권28에 게재된 거사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거사가 처음 통주(通州) 주부(主簿)에 임명받아 하루는 절에서 방대한 대장경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발끈해 "나의 공자(孔子) 성인의 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고는 집에 들어가 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침울해 했다. 이에 부인 상(尙)씨가 그 까닭을 묻자 "다만 무불론(無佛論)을 지으려 할 뿐이요"라고 답했다. 상씨는 "이미 부처가 없는 데(無佛), 어찌 논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거

사(元祐) 연간(1086-1093)에 하동(河東)의 제정형 옥(提點刑獄)을 맡아 청량산(淸涼山: 五臺山)에서 재계(齋戒)하며 문수보살에게 기도했다.<불조통기> 권46에는 이 시기를 원우 2년(1087) 7월이라고 한다. 이때 거사는 몇 차례 금등광명(金燈光明)이 낮과 같이 환히 비추고 문수보살이 공중에 화현함을 목도했다고 한다. 이에 거사는 문수보살을 조상(造像)해 산사에 공양하고 <발원문(發願文)>을 찬술했다.

이후, 거사는 동림상종(東林常總), 도솔종열(兜率從悅), 매당조심(梅堂祖心), 대혜종교(大慧宗杲) 등 여러 선사들과 밀접하게 왕래하면서 조사선을 접했고,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 거사는 선화(宣和) 4년 11월 아침에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포(遺教)를 받아 적게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꿈같은 벼슬살이 81년, 거품처럼 생멸한 것이 누가 알리랴. 허공을 치고 부수어 오고 감으로 돌아오니, 쇠로 된 소가 바대로 들어가 소식이 없구나. 베개를 베고 누우니 창



그림 · 김홍인

번하고 있다. 또한 거사는 "역대로 관찰해보면, 큰 도독간신과 역적들이 재능이 뛰어나고 박학한 선비들을 이끄는 것이 어찌 선왕(先王)의 죄이었으며, 경사(經史)의 죄이겠는가? 말법(末法)·상교(象敎)의 승려 가운데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음은 면할 수 없는 추세이다"라고 논했다. 거사는 당시 불교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말법시대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변호했다.

나아가 거사는 이러한 불교의 타락은 단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어찌 불교를 배우는 무리들만이 그러한가? 공자의 시대에도 이미 선비 가운데 군자와 소인이 있었는데, 후세에 유복(儒服)을 입은 자가 모두 공자·맹자나 안회(顔回)·민자권(閔子騫)과 같은 이들 뿐이겠는가! 비록 군자가 힘을 배운다고 해도 어찌 모두 군자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유가에서도 역시 소인배가 있을 수 있으니, 불교의 일부 타락한 승려들만을 보고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거사는 "옛날에 무작(無著)이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이 미 범승(凡聖)이 함께 있었고, 용과 뱀이 혼잡하고 있었으니, 현재 성인(聖人)과 점점 멀어져 그 순일(純一)을 구함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해 불교의 타락상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하고 있음이 보인다.

거사는 또한 불·유·도 삼교의 관계에 대하여 "유교는 군자(君子)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피부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요, 도가의 책들은 날마다 줄이고 또 줄이는 가르침으로 핏맥(血脈)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요, 불교는 바로 근본을 가려져 지업을 남기지 않는 가르침으로 골수(骨髓)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입장은 수대(隋代)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다."<불조통기> 권39)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이후 원대 유림의 <삼교평심론>의 모티브에서 "불교로 마음을 다스리고, 도교로 몸을 다스리며 유교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거사의 <호법론>에는 불교의 당연한 문제에 대해 "현재 세상에서 그를 정제(整齊)할 사람이 우리들을 제외하고는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사대부 거사의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사의 <호법론>은 중국 '거사'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호법론>은 결코 장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개된 논리는 이전의 호법론과는 다른 현실적인 감각이 뚜렷이 살아있다. 더욱이 <호법론>을 찬술하여 유통시킨 시기는 바로 거사가 재상을 역임하던 기간이었기에 이 책의 영향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고, 또한 역대로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에 비판적이다가 '유마경' 읽고 삼보에 귀의 '호법론' 삼교합일로부터 호법 논한 대표작

사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다. 후에 다시 그 절에서 <유마경>을 발견하고 읽을 때였다. '유마거사의 병은 지대(地大)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한 지대를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오랑캐의 말에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탄식하며 경전을 빌려 돌아왔다. 부인 상씨가 이를 보고서 "이 경전을 숙독하고 난 후에서나 '무불론'을 쓰시지요"라고 권했다. 이후 거사는 점차 깊게 불법을 신앙하기 시작했다.

한편 <불조통기> 권25에도 같은 거사가 보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불조통기>에서는 이 일을 원종(元宗) 3년(1080)에 발생한 것이라 하고, <유마경>의 그 구절로부터 대오(大悟)했다고 전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거사는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중년에 이르러 그의 부인과 <유마경>에 대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했음이 짐작된다. 오히려 거사는 불교에 귀의한 이후에 자주 "내가 불교를 공부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유학을 알게 됐다"(<인천보감(人天寶鑑)>)라고 말했다.

신종(神宗)시기에 거사는 왕안석의 추천으로 중앙 관직에 오르고, 다시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맡았다.

문에 부딪는 소리가 우레 같도다." 입적 후 거사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사는 평생 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썼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법론>(<대정장> 52권에 수록)이다. 거사의 <호법론>은 당대(唐代) 이사경(李師政) 거사의 <내덕론(內德論)>과 원대(元代) 유림(劉麟)의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과 함께 불·유·도 삼교합일로 부터 호법을 논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거사의 <호법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의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변론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송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치국의 이념으로 삼았지만, 사원의 경제는 유래 없이 번창했다. 그것은 송대에 이르러 상업이 번창해 화폐경제가 발전했고, 그에 따라 사찰의 보수형태가 화폐로 전환됨에 따라 축재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생고(長生庫)의 경영과 사전(寺田)의 확대, 공덕분사(功德分寺)의 왕공귀족들의 묘지에 짓는 사찰의 성행 등으로 사원경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송대 영파(寧波) 천동사(天童寺)의 전답은 3200무(畝); 사

방 백 걸음이 1무, 대략 666.5㎡, 약 200평)였고, 임야가 1만8900무였다. 북송의 사전은 민전(民田)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원경제의 비대에 따라 도둑(度牒)의 매매가 성행했고, 승가에 여러 가지 폐단이 출현했다.

대혜종교 선사의 <종문무고(宗門武庫)>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부림(富弼) 거사는 재상에서 물러나 낙양에 머물면서 항상 도를 몰았던 화엄수옹(華嚴修翫) 선사를 낙양의 초제사(招提寺)에 주석하도록 청했다. 수옹 선사가 낙양 경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림 거사가 마중을 가려는 중에 마침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司馬光)이 찾아와 함께 수옹 선사를 뵈러 갔다. 가던 중 수심 명의 집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마광이 묻기를, "누구의 집인가?"라고 하자 집꾼들은 "초제사에 새로 오시는 선사의 집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사마광은 돌아

가려고 하니, 부림 거사가 "수옹 선사를 뵈고자 하더니, 어쩌서 먼저 돌아가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사마광은 "저는 이미 선사를 만나 뵈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이러한 일화는 당시 사원경제의 비대를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송대의 불교계를 자세히 묘사한 도옹(道融)의 <총림성사>에는 당시 승려들의 타락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장상영 거사의 <호법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승가에 대한 경책과 함께 변호를 진행하고 있음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사는 <호법론>에서는 "정법(正法)이 타락하고 마법(魔法)이 기승을 부림"으로 당시의 불교현상을 진단하고, "오늘의 불교가 비록 1100의 승려 가운데 하나도 능히 고인을 따라갈 자가 없는데, 이것이 어찌 불법의 죄이겠는가? 사람의 죄일 뿐"이라고 해 당시 불교현상을

불자 정보

735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모변 3층건물층 3층
- 평수: 법당겸 주방 약 15평, 유탕방 1
- 가액: 보증금 8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삼존불 등 400만원
- 유동인구 많음
-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층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 1, 방 6개 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불상, 탕화제외)

010-4199-0047

사찰 안내

- 위치: 경주
- 문화재 탑 있음
- 요사채 50평, 대웅전, 산신각
- 가액: 전세 4000만원

010-2394-4040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 목담 오시면 됩니다

051)361-8511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 총평수 2000평
- 등기부지 1200평
- 건물 9동(목조건물)
- 가액: 7억 5천만원
- 산세수려하고 계곡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곳

043)848-5311

임법당 (금) 안내

- 위치: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 아들바위 부근
- 주택 2동, 텃밭 조금
- 대지 82평
- 가액: 8천 7백만원

010-5201-8338

포교당 안내

- 위치: 마산시 완월동 도심 속 아파트촌
- 법당, 삼존불, 신중탱화, 영가단 완비
- 입식부엌, 요사채방 4, 창고 2, 정원
- 평수: 68평(개인주택), 모든 시설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일체 포함
- 차량으로 10분거리에 농촌집 텃밭 150평 포함

010-3869-1662

토굴 안내

- 위치: 하동 약양, 지리산자락
- 부지: 68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2억 2천만원

010-4782-211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 법문, 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 행사, 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 1세트 CD 30장 20만원
-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세트 20장 CD 16만 5천원
-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도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 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 제작해 드립니다.
3.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보환 촬영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랐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차)

- 1부. 신도神道를 닦다
- 2부. 죽어서 가는 길
- 3부. 전생과 현생
-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 5부. 기도·수도 체험기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가격 15,000원

조상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낙태된 태아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제가 본 신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들의 세계가 이 땅에 함께하며, 사람들의 삶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신, 즉 죽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살아서는 만물의 영장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나락으로 떨어져 한낱 동식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었습니다. 제가 신도神道를 충실히 닦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의 말씀처럼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은 태어나서의 열 년을 준비함이고, 살아가는 백 년은 죽음 후의 천 년을 준비함"입니다.

죽어서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도가 없으니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서문을 대신하며 ... 저자 해광 하순천 (도서관에서)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서울)골드북닷컴
인천)대인서림 | 대전)대문서적 | 부산)영광도서 | 광주)충정서림
청주)일신문고 | 포항)포항문고 | 진주)진주문고 | 전주)홍지서림 등